

봄의 불청객 황사 실종?

남서풍 북쪽으로 불고 작년 中 폭설 영향

광주·전남 4월 들어선 한차례도 발생 안해

낙관은 금물…‘5월 습격’ 철저히 대비해야

이 맘 때쯤이면 항상 찾아와 사람들을 괴롭히던 ‘봄의 불청객’ 황사 소식이 들피다. 불과 100m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작은 모래 등이 봄철에 중국과 몽골에서부터 몰려와 온통 먼지 세상으로 만들던 황사지만 예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발생 횟수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 2월 22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올 봄 호남 지역의 황사 발생 일수는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치인 5.0일보다 더 많은 8~9일로 예상된다”며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호남 지역은 황사 발생 일수가 전국 평균보다 1일 정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올 들어 22일 현재까지 광주지역 황사 발생 횟수는 3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했던 6일보다 절반이 줄었다. 지난 2006년(11일)과 2001년(16일)에 비해서도 현격히 줄어든 수치다. 전남 지역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지역이 3일 이하로 발생했고, 단 하루도 황사가 나타나지 않은 곳도 많았다.

그동안 황사는 특히 4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2006년 6일 ▲2005년 4일 ▲1998년 8월로 나타났으며 지난 1993년에는 4월 한 달에 무려 10일 동안 황사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또 지난해 4월 1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1천 343㎍/㎥까지 오르는 등 광주 지방기상청에서 황사 특보가 도입된 이후 최고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6월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북태평양기단이 일찍 발생해 생기는 남서풍이 북쪽으로부터 유입되는 황사를 밀어내기 때문에 보고 있다. 중국의 발원지에 고기압이 형성돼 북서풍이 불어와 하는데 한반도 쪽으로 바람이 불지 않아 황사 위험성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 과학교육부부류한수 교수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름철에 발생되는 북태평양기단이 일찍 나타나 남서풍이 부는 것도 황사가



내려오지 못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또 올 겨울 중국 네이멍구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지표면의 견조를 막아 황사 발생 빙도를 낮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황사는 5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관심하기에는 어렵다. 지난해에도 5월에 두 차례나 황사가 덮쳐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황사 발생 원인의 해결되지 않은 이상 황사가 찾아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며 “5월까지는 황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환경 강좌’로 지구 환경 살린다

시민·환경단체 ‘온실가스 감축’ 등 잇따라 개설

단순 지식전달 넘어 체험 통한 환경 소중함 교육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 관련 강좌가 잇따라 열려 관심을 모이고 있다.

주암호보전협의회는 23일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해를 돋는 제9회 주암호 환경대학을 개최한다.

협의회는 오는 5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6회에 걸쳐 수돗물, 지구온난화, 환경호르몬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강좌를 연다. 강의 내용으로는 ▲23일 광주시수질연구소 조영관 소장의 ‘상수원 수질관리와 수돗물’ ▲30일 광주보건대 노기환 교수의 ‘올바른 환경실천과 온실가스 감축’ ▲5월 7일 광주시교

육청 김양근 장학사의 ‘지구온난화’ ▲5월 21일 동산대 백순기 교수의 ‘환경호르몬과 건강’ 등 모두 10강좌와 함께 환경 담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전남녹색연합도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녹색어린이’를 모집한다.

‘녹색어린이’는 초등학생들이 영산강 상·중·하류 지역을 직접 탐방, 체험학습을 통해 물의 소중함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6일 영산강 발원지 탐사,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곤충 알아보기, 담양습지 이야기 ▲5월 24일 옛 배길 흙적 구진포 이야기, 영산강 생태

태지도 만들기, 나주천연염색문화 체험 ▲6월 28일 영산호 배타기, 영산강 하구둑 이야기 등으로 진행하게 된다.

‘광주생명의 숲’은 오는 5월 21일부터 숲과 자연에 대해 지식 전달이 아닌 놀 이를 통한 접근으로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숲, 자연놀이’ 강좌를 연다.

‘숲, 자연놀이’ 강좌는 오는 6월 11일 까지 매주 수·금요일 등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자연나눔 이론 ▲사계절 생태놀이 등을 주제로 열린다.

광주생명의 숲 정은실 간사는 “최근 환경 관련 교육들이 단순 지식전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놀이를 통한 교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 달리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태안 기름오염 사고 특별전

폐사 조류 등 박제해 전시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삼성 하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가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리기 위한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9일부터 9월말까지 인천시 경서동 종합환경단지에 위치한 자원관 내 전시관에서 ‘태안 유류오염사고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오염사고로 폐사한 조류 9종을 세척한 박제된 표본이 폐사 당시의 사진과 함께 전시되며 오염지역에 사는 서해비단고둥, 아무르불가사리 등 무척추 동물 5종 40여점도 선보인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국립공원내 야생식물 채취하지 마세요

관리공단 내달까지 집중 단속

적발땐 3년이하 징역·벌금형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봄을 맞아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산나물, 난 등 야생식물 채취 행위와 소나무 등 불법 수목 굽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공단은 오는 5월 말까지 국립공원에서 조경용 야생식물을 밀반출하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는 등 자연 훼손이 많을 것으로 보고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협동 순찰을 강화하고 흥보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최근 불법채취된 조경용 야생수목이 밀반출업자에 의해 고가로 매매되고 있고, 봄철 산나물은 쌀을 쓸어내며 대량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 행위는 등산로가 아닌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

고 있어 흡연이나 취사 등으로 인한 제2의 자연훼손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야생식물을 채취하려다 적발된 수는 지난 2005~2007년간 모두 358건으로 이 중 36.3%에 달하는 130건이 3~5월에 단속됐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에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져가는 안 되는 만큼 식물 등의 채취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공원별 집중 단속을 하는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공원법(제27조 금지행위)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이나 돌, 모래, 자갈 등의 꽂물이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대학편입 김영에 알려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www.kimyoung.co.kr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3-1140, 3210 현 011-602-2522
(광주은행 신분증, 대인동 삼성사거리)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뿐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 중 절
포가 잘 형성되어 편세가 다
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
는 곳으로 1층 절포가 4~5

칸 정도에 절포가 여러 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래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 (02) 23-8216 현 011-609-0896
(광주우체국부두)

상가건물을 매도

금호 대로 231m(70평) 5층 20억
충전로 대로 230(70평) 5층 18억

충전로 대로 208(63평) 4층 18억

충전로 대로 165(50평) 4층 23억

금호동 구내로 대로 537(63평) 4층 15억

불광동 한성대로 1490(450평) 4층 15억

금호동 대로 231(70평) 3.5층 25억

도화동 한성대로 165(30평) 10층 25억

도화동 한성대로 165(10평) 10층 75억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02) 383-5221 현 011-609-5221
(구상무부대점)

빌딩

대전 600 간접 1,352 보36억/월 세3,

100평(월)지역회고상권) 월세129평
기79평(대물고방) 등

• 대전 600(20평) 4층 4,000

만원 월세16평 매기65억

• 대전 210(200평) 8층 2,000

만원 월세16평 매기34억

• 대전 200(200평) 8층 2,000

만원 월세16평 매기30억 월세

• 대전 200/210(200평) 8층 2,000

만원 월세16평 매기16평

• 대전 210/215(215평) 8층 2,000

만원 월세16평 매기15평

• 대전 210(215평) 8층 2,000

만원 월세16평 매기15평

• 대전 210(215평) 8층 2,000

만원 월세16평 매기15평

• 대전 2